

다) 전남사찰문화권

(1) 유형문화자원

이 지역의 유형문화자원은 백양사를 중심으로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 시도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전각, 탑, 부도비, 석비 등 다양한 불교문화 유적이 산재하여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총 46건의 문화자원이 조사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자 원 명	지정현황 (지정호수)	격자	용도지구	시대	비고
1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보물 (제1346호)	28	문화유산지구	조선	박물관 소재
2	장성 백양사 백학봉	명승 (제38호)	25	문화유산지구	미상	
3	장성 백양사고불매	천연기념물 (제486호)	25	문화유산지구	조선	
4	장성 백양사극락보전목조 아미타여래좌상	시도유형문화재 (제289호)	25	문화유산지구	조선	
5	장성 백양사극락보전 아미타회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291호)	28	문화유산지구	조선	박물관 소재
6	백양사극락보전	시도유형문화재 (제32호)	25	문화유산지구	조선	
7	백양사대웅전	시도유형문화재 (제43호)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8	백양사사천왕문	시도유형문화재 (제44호)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9	장성 백양사각진국사 복구진영	시도유형문화재 (제290호)	28	문화유산지구	조선	박물관 소재
10	청류암관음전	문화재자료 (제179호)	27	문화유산지구	고려	
11	남천감로 각자와 장군샘	비지정	27	문화유산지구	조선	
12	봉황대 각석	비지정	27	자연보존지구	조선	
13	백양사탄생상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조선	박물관 소재
14	신소 사천왕상 기실비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15	백양사청류암관음전 후불탱화	비지정	27	문화유산지구	조선	
16	국제기각자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미상	
17	기양연각자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조선	
18	만암당 부도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19	백양사나반존자상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20	백양사대웅전독성탱화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21	백양사대웅전신중탱화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22	백양사대웅전후불탱화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23	백양사 기적비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24	백양사극락보전신중탱화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조선	
25	백양사양약선사비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26	백양사화엄종주연담당 대사비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27	백양사 모운당 부도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조선	
28	백양사 무가당 부도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조선	
29	백양사 서운당 부도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조선	
30	백양사 영월당 부도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조선	
31	백양사 지백당 부도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조선	
32	백양사화담선사비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33	백양사명부전지장 삼존시왕상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34	백양사칠성전칠성상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조선	
35	백양사팔상탱화3점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조선	박물관 소재
36	백양사 괘불지주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미상	
37	백양사대웅전십육나한상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38	백양사불사리탑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39	백양사불사리탑비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40	백양사서향암돌탑	비지정	27	문화유산지구	미상	
41	백양사오백나한상	비지정	28	문화유산지구	고려	박물관 소재
42	백양사 진영각칠성전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43	백양사명부전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44	백양사서향암미타보궁 아미타여래좌상	비지정	27	문화유산지구	조선	
45	백양사청류암아미타 여래좌상	비지정	27	문화유산지구	조선	
46	백양사범종루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일제강점기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백양사 26대 주지였던 소요대사의 부도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가, 2002년 9월 25일 보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질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높이 160cm 둘레 280cm 직경 100cm로 되어 있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석종형 부도로 지대석과 기단부는 8각으로 되어 있다.

탑신부와 상륜부를 하나의 몸체(석재)로 구성하여 상륜부 정상에 여의주형 보주를 마련하고 사방에 용두를 배치하여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으로 구성하였고 용두 사이에는 소용돌이치는 구름무늬를 볼륨 있게 장식하였다. 정상의 여의주형 보주 상단에 원형의 작은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또 하나의 작은 부재를 결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탑신부 중앙에는 장방형의 구획을 두어 "소요당(逍遙堂)"이란 당호를 음각으로 중서하였다.

위패형 장식의 좌우 유곽아래에는 구름에 싸인 두 마리의 용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였으며 후면에도 한 마리의 용을 배치하여 모두 3마리의 용이 탑신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두 줄의 굵은 돌출선으로 구획된 하대에는 전면에 거북이 기어오르는 모습을 양각하고 그 좌우로 돌아가면서 귀면 게 개구리 거북 파도문 운문 등을 장식하였다.

풍화로 인하여 탑신 좌우측의 조각이 상당부분 떨어져 나가 있다.

장성 백양사 백학봉

백양사는 632년(백제 무왕 33)에 여환선사가 백암사로 창건하여 5차례의 중창을 거치면서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1034년(고려 덕종 3) 중연선사가 재창하면서 사찰명을 정토사로 바꾸었다. 이 내용은 정도전이 지었다고 전하는 백암산정토사교루기(白巖山淨土寺橋樓記)에 "이 산은 암석이 모두 흰 빛을 띠고 있어 백암이라 하였으며 장성군 북쪽 30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한때 폐사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서산대사 유정의 수제자인 소요대사의 출가와 휴정의 4세 법손인 환성선사와 그의 문손들이 머물면서 더욱 탄탄한 도량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일제시대 사찰령에 의하여 시행된 30본산제도를 통하여 송광사 / 대흥사 / 선암사와 함께 전라남도 지역의 본산으로 지정되었다.

백양사 출신으로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한 서옹스님이 주석한 이후 80년대부터

추진해온 불사 끝에 총림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1996년 3월 31일 고불총림으로 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백학봉은 암벽이 하얀 빛을 띠고 있고 백학봉 아래 학바위가 있어서 백학(白鶴)이란 이름이 붙었다. 백양사와 더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일찌감치 인정받아서 대한 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백양사와 백학봉은 그 경관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식생 생물자원의 보고로 인정받아서 2008년 2월 5일 국가 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장성 백양사 고불매

백양사고불매는 백양사 우화루 옆에 서 있는 매화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8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알려지기로는 1700년 경부터 백양사의 스님들이 매화나무를 심고 가꾸어왔는데 19세기 백양사의 위치를 이전할 때 지금의 자리에 백매와 홍매 한 그루씩을 심었다고 한다.

그 중 백매는 고사되었고 홍매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1947년 백양사가 고불총림을 결성하면서 이 홍매에게 고불을 닮았다 하여 고불매란 이름을 붙여줬다고 전한다.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백양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상은 서방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여래를 구현한 상으로 장대한 체구에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불상이다.

이 불상은 2005년 2월 발견된 복장물에서 1741년(영조 17) 명부전의 시왕상 중수와 함께 개금불사를 시행했다는 복장기(26×129cm)가 나왔다. 이로써 이 불상이 17세기 전반기(또는 16세기 후반)에 조성되어 1741년에 개금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목부분과 양 어깨부위와의 연결부분이 매우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둘째 깊게 파인 U자형의 옷주름과 가슴중앙에 일자형으로 가로 지른 3조의 띠주름 위에 연화문 장식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양 어깨에 나타나는 오자형의 옷주름과 무릎 밑으로 펼쳐진 오자형의 균의자락 불상의 앉은 자세가 거의 직각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17세기 전기에 제작된 불상이 많지 않기에 이 불상은 당시의 시대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아미타회상도

백양사 극락전에 봉안되었던 조선시대의 아미타회상도이다. 1775년에 제작된 후불

탱화로서 보기 드문 대형 작품이다.

탱화에는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 / 여섯 나한 / 사천왕 / 건달바 / 긴나라가 묘사되어 있다.

화면은 상하 2단으로 크게 구분하여서 상단의 아미타여래는 하단중앙에서 시작되는 높은 불탁 위에 연꽃을 깔고 가부좌한 모습이다.

부처의 주위에는 네 보살과 나한 긴나라와 건달바가 앞의 인물상들에게 가려져 머리만 묘사되어 있다. 하단에는 사천왕과 네 보살이 부처의 조금 옆쪽에서 앞에서부터 크게 자리 잡고 서있다.

이 불화는 부처를 중심으로 정확한 좌우대칭구도이지만 각 인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다르고 서로 대화를 하는 듯이 자유롭게 그려져 있는 특색있는 탱화이다.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화의 색감과 구도를 갖고 있으나 후대에 여러 곳에 덧칠을 함으로써 작품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백양사극락보전

백양사 극락보전은 정면3칸 측면 3칸의 규모를 가진 다포양식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극락보전은 ‘극락정토’를 상징하며 서방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는 건물이다. 극락보전은 선조7년(1574)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건축양식이나 형태로 보아 영·정조 시대 만들어진 건축물로 보이며, 백양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백양사의 역사에서 보듯이 정토사 혹은 정토정사를 표방한 경우가 많아 아마도 이 극락보전이 백양사의 주 금당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옛 건축양식의 원형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매우 귀중한 역사자료이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32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양사 대웅전

백양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를 가진 다포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대웅전은 원래 ‘큰 영웅의 집’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큰 영웅 즉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신 건물이다. 대웅전의 경우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좌우에 협시보살인 문수와 보현보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관음보살을 둔 이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내부는 우물바닥과 우물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천장 단집 주위에는 조그만 청룡, 황룡, 비천, 청학과 백학을 탄 선인들이 날고 사슴과 봉황 등이 모빌처럼 양증맞게 매달려 보는 이의 이채를 띠게 만든다. 백양사 대웅전은 1919년 만암선사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43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양사사천왕문

백양사 사천왕문은 정면3칸 측면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사천왕문은 주로 사찰의 초입에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천왕상을 세워 만든 문이다. 사천왕은 불국토의 사방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신으로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인데 각각 비파, 용과 여의주, 보검, 탑을 가지고 있어 구별된다. 백양사 사천왕문은 1919년 대웅전이 조성됐을 때 같이 세워졌으며, 구례 화엄사, 장흥 보림사의 사천왕문과 함께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44호로 지정되어 있다.

장성백양사각진국사복구진영

이 진영도 팔상탱화와 함께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반환된 것이다. 비단에 채색한 것으로 가로 85cm, 세로 131cm이고, 얼굴부분은 물에 얼룩져 변진 흔적이 심하게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박락된 곳이 많아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불화기에 의하면 道光 5년, 1886년에 그린 것은 알 수 있다. 각진국사 각엄(覺嚴) 복구(復丘)는 명문대가인 고성 이씨 집안에서 충렬왕 때의 명신 이존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8세에 백양사에서 불가에 입문한 뒤 산수 간에 유유자적하며 수도에만 정진하였다. 후일 문도들의 도움을 받아 퇴락한 백양사를 중건하였고,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가져와 백양사에 봉안하게 하였다. 그림에 표현된 각진국사는 검정의 자에 걸터앉아 향 좌측을 향하여 약간 측면으로 그려져 있으며 청색 범의와 빨간색 가사를 걸치고 긴 불자를 왼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얼굴은 짧은 수염이 듬성듬성 나있고, 가늘고 긴 눈과 눈썹의 끝이 강하게 꺾인 형태로 표현되어 엄숙한 인상을 준다. 스님의 앞으로는 거칠고 뾰족한 바위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심하게 외곡된 소나무 줄기가 상단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다.

청류암 관음전

청류암은 백양사에 소속된 암자로 1350년(충정왕 2) 각엄왕사(覺嚴王師)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곳 청류암은 마음을 청정한 맑은 물에 비유하여 청정무구한 심성으로 선(禪)에 들어라하여 청류암이라 하였다 한다.

이 암자에서는 백양사 제15대 주지 청수선사를 비롯하여 제25대 환양선사 제26대 소요대사 제35대 도암선사 제43대 금해선사 제47대 환용선사 제50대 만암대종사(1930~1942년)에 이르기까지 백양사의 고승대덕 스님이 주석하여 선도를 이룩한

청정도량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남천감로 각자와 장군샘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공주 우금티에서 패배한 후 장성지역으로 숨어들어 왔는데 입암산성에서 재기를 노리다 관군을 피해 백양사 청류암에서 하루 동안 기거하였다고 한다. 이때 청류암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너무나 맑고 시원해 '남천감로'라는 글을 바위에 새겼다고 전해진다.

현재 남천감로 각자가 남아 있고 주변에 샘이 흘러내리는데 사람들이 이를 장군샘으로 부르고 있다.

봉황대 각석

바위 암벽에 새겨진 봉황대 각석은 '봉황대'라는 명문과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문이 가운데 새겨있고 주위에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각석의 조성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몇몇 각석에서 보이는 간지로 보아 1890년대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양사 탄생상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 이 탄생상은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대좌 높이 9cm 불상높이 22.5cm, 폭 8cm이다. 상의는 입지 않았고 하의만 입고 있다. 통통한 얼굴에 낮은 육계 머리와 합쳐져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대좌는 양련과 복련이 중대석이 없이 이어진 모습이다. 목이 아주 짧고 등이 구부정한 모습에서 조선시대 작품으로 보인다.

신소 사천왕상 기실비

신소 사천왕상 기실비(新塑四天王像記實碑)는 1925년 7월 백양사 사천왕문에 소조의 사천왕상을 새로 모신 기록을 적어 놓은 비다. 이 비의 전면에는 신소사천왕상 기실, 뒷면에는 시주자 108명의 이름, 좌측면에는 관련 스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비문은 만암스님이 썼으며 비신의 폭은 47.5cm, 두께 27.5cm, 높이 141cm이다.

백양사 청류암관음전후불탱화

백양사 청류암 관음전의 후불탱화인 이 불화는 비단에 채색한 것으로 붉은 색조에 다 구름이나 옷자락 사이에 진한 청색을 사용하였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그려진 이 삼불회도는 가로 139cm, 세로 166cm의 크기로 화기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인 광

서(光緒) 19년(1892)에 장성 백양사 청류동 기봉암(岐鳳庵)에서 조성하여 관음전에 봉안하였다고 되어있다.

국제기각자

국제기 각자는 옛 국기단 터를 알려주는 각자로 바위에 세로로 '國祭基(국제기)'라는 글자가 2행 새겨져 있다.

각자를 새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61년(현종 2)에 국기제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아마도 국기제와 국기단이 사라진 후 그 위치를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 새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양연각자

기양연 각자는 백양사에서 약사암으로 가는 탐방로 좌측 바위에 새겨져 있다.

바위에는 奇亮衍, 山人桂煥(기양연, 산인규환)이 세로로 두줄 새겨져 있고, 아랫쪽 바위에 長春洞天 耕叟烟霞(장춘동천 경수연하)란 글자가 세로로 두줄 새겨져 있다. 두 각자의 서체가 달라 같은 시기에 새겨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종 때 정읍현감이 기양연과 백양사의 고승인 도암의 제자인 규환의 이름과 신선사상이 담긴 글귀가 새겨져 있다.

만암당부도

이 부도 역시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로서 앞서 살핀 소요당 부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작품이다. 8각 지대석 부분이 매몰되어 있는데, 지대석 상면에서 보주까지의 총 높이는 175cm이고 종신(탑신)부분의 최대둘레는 285cm이다.

지대석 위의 기단부 역시 8각인데, 측면의 앞쪽 모서리에는 기어오르는 형태의 거북을 좌우로 배치하였고 후면에서도 한 마리의 거북을 두었다. 그리고 각 면에는 간략화 되고 변형된 화문을 장식하여 소요당 부도의 장식문양과는 비교가 된다. 기단부 상면은 볼륨이 풍부한 8엽 복련과 간판을 장식하였고 그 위로 1단의 호형(弧形) 괴임을 마련하여 종형탑신을 받고 있다.

이 부도의 주인공은 법명이 종헌(宗憲)이며 법호(당호)가 만암이다. 속성은 송씨로 고종13년(1876) 고창에서 출생하였다. 11세에 백양사에서 출가하여 교선을 두루 공부한 후 1914년 백양사 주지로 선임되어 중건불사를 이루었다. 교육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불교전수학교(현 동국대학교 전신)와 광주의 정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1952년 조계종 종정에 추대되었으며, 1956년 입적하였다.

백양사 나반존자상

나반존자는 독성(獨聖)이라고도 하며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을 말하는 것으로 백양사의 나반존자상은 십육나한상과 마찬가지로 1925년에 이만총(李萬聰)이 조성하였다. 소조상으로 높이 42cm, 가로 42cm, 세로 33cm 크기이다. 십육나한상과 그 표현방식이 매우 흡사하다.

백양사 대웅전독성탱화

가로 130cm, 세로 158cm의 크기로 장지에 채색하여 그렸다. 1926년에 대웅전 후불탱화를 그렸던 금어 봉영(奉榮)과 화사(畫師) 춘화(春化)가 제작하였다. 폭포가 흘러내리는 험준한 바위산이 뺨뺨이 들어찬 언덕에, 두 동자를 거느린 나반존자가 앉아 있다. 나반존자는 붉은 해무리 모양의 두광을 가지고 있고, 턱밑까지 내려오는 긴 눈썹, 구레나룻 수염이 표현되어 있다.

독성의 얼굴은 움푹 들어간 눈으로 인해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손에는 긴 석장과 염주를 들고 있으며 언덕 사이에 아름다운 꽃과 불로초 등이 그려져 있다. 조사가 앉은 언덕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몇 그루 자리 잡고 있는데, 언덕을 흘러내리는 반복된 선과 소나무 가지의 동일한 형태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어서 도식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백양사 대웅전신중탱화

대웅전의 향우 측 정면 벽에 걸린 신중탱화는 가로 210cm, 세로 290cm로 비단에 채색된 그림이다. 이 불화는 대웅전 후불탱화와 함께 1922년에 그려진 것으로, 후불탱화보다 초록색의 사용을 줄이고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여 그렸다. 일반적인 신중탱화와는 달리 범천과 제석천, 위태천왕 등이 상단에 흩어져 크게 그려져 있고, 많은 신중들이 대략 4개의 단으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다. 앞의 후불탱화와 마찬가지로 화면 하단부터 그 크기가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작아져서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금어는 봉영(奉榮)이다.

백양사 대웅전후불탱화

후불탱화는 중앙에 석가모니불을 그리고, 6대 보살과 사천왕 그리고 10대 제자가 3단으로 나뉘어 그려진 영상회상도이다. 장지에 채색을 하였는데 가로 320cm, 세로 350cm이다. 향 좌측 하단에 실린 불화기에 의하면 불기(佛紀) 2949년(1922)에 금어(金魚:탱화제작의 우두머리) 봉영(奉榮)과 재명(再明)이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불화는 전체적으로 초록색과 빨강색조로, 약간의 옷자락과 먼 하늘 표현에 청록색을

사용하였다. 중앙의 석가모니는 꽃무늬 단이 달린 빨강색 법의를 입고, 대좌 위에 앉은 모습으로 둥근 얼굴이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이 두 개의 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두광은 진한 초록색을 칠하여 부처의 정상 계주에서 발산하는 빛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신광은 중앙 하단에서 부처살 모양의 파상선을 긋고 선 안쪽에 빨강, 파랑, 초록 등 장식적인 색을 칠하였다. 이것은 조선말기에 유행했던 양식이다. 주변의 성증들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하단이 가장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크기로 배치하여 점점 멀어지게 보이도록 하였다. 제일 하단의 양쪽 끝에 위치한 두 천왕은 갑옷을 입고 매우 건장하게 그려져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나 손의 모습 등이 어색한 편이다. 만암스님은 1916년에 쇠락한 백양사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대중창 불사를 계획하였다. 1926년까지 백양사를 증축하였는데, 그 증축 때 이 불화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채색과 구름 등의 표현에서 20세기 초기 작품의 특성이 보인다.

백양사 기적비

전면과 뒷면만 각자가 되어 있다. 전면에는 전서체로 「백양사기적비명」이라는 비액이 가로로 새겨져 있고, 비체 역시 「백양사기적비명」이나 글씨는 세로로 쓴 행서체이다. 뒷면에는 백양사 창건연대·창건주·주지·동역·본사조연·제산조연·제산사중·단신조연 등을 새겼다.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1892~?)가 찬하고, 글씨는 성당거사 김돈희가 쓴 것이다. 1926년에 세운 이 비는 크기가 높이 210.5cm, 폭 74.5cm, 두께 39.5cm이다.

백양사 극락보전신중탱화

이 불화는 비단에 채색한 것으로 가로 200cm, 세로 135cm이다. 하단중앙의 불화기에 의하면 光緒十九年 壬辰年에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광서 19년은 1893년이고 임진년은 1892년 이어서 1년의 차이가 나지만 간지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892년에 청류암에서 조성하여 극락전에 봉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면은 진한 청색의 하늘바탕에 구름이 둘러 쌓인 천중이 2개의 단을 이루고 나타나있다. 하단은 여러 신중들이 자리하고 있고, 상단은 범천, 제석천, 위태천왕 등이 자리하여 하단보다 그 크기가 더 크다.

백양사 양악선사비

양악당(羊岳堂) 계선(啓璇)(1697~1783) 선사의 비석이다. 전면 상단에 전서로 「양악선사비명」이라는 비액(碑額)을 새기고 그 좌측에 세로로 「양악선사비명병서」라는 비

체를 해서로 새긴 다음 비문을 새겼다. 비문은 우측면으로 이어진다. 뒷면에는 11단에 걸쳐 8세까지의 사법(嗣法)을 새겨 놓았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82.5cm, 폭 58.5cm, 두께 30.7cm이다. 1935년에 세운 이 비석은 염재거사 송태회가 찬하고 글을 썼다.

백양사 화엄종주연담당대사비

화엄종주 연담당(蓮潭堂) 유일(有一)(1720~1799) 대선사의 비석이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172cm, 폭 72cm, 두께 30cm이다. 전면에 가로로 「연담당대선사비명」이라는 비액을 새기고, 그 좌측에 세로로 「화엄종주연담당대사비명병서」라는 비체에 이어 비명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화엄종의 내력과 연담의 행장과 저술을 비롯하여 비를 세운 내력을 적고 이어서 제산(諸山)의 조연(助緣)과 당시의 문도의 이름을 새겼다. 문도의 이름은 좌측면으로 이어진다.

1927년 3월에 세운 이 비는 난곡거사(蘭谷居士) 이견방(李建芳)이 찬하고 성당거사(惺堂居士) 김돈희(金敦熙)가 글씨를 썼으며, 새긴 사람은 한선장(韓善章)이다. 그런데 이 비는 원비가 아니나 전면의 비명은 옛 비석 그대로인 듯하고, 뒷면의 글은 정호 박한영이 새로 추가한 것이다. 비액은 전서이고, 비명은 행서이다.

백양사 모운당부도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이며, 규모는 총고 128cm이고 둘레는 214cm이다. 8각 기단석(가로 83cm, 세로 80cm, 높이 12cm) 위에 종형 탑신을 올렸다. 기단석 측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윗면에는 부분적으로 복련의 연화문 장식이 장식되었으며, 1단의 호형괴임을 마련하여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에는 두 줄의 굵은 선으로 상대와 하대를 구획하여, 상대 내에는 6자의 범자문을 장식문양으로 새겼는데 범자문이 상대에 나타나는 현상은 조선후기 범종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하대에는 두 마리의 거북과 한 마리의 자라와 게를 조각하였다. 상대와 하대 사이에는 4구의 유곽을 마련하였는데, 유곽이 상대에서 분리되었으며 사다리꼴이 아닌 장방형 모양이다. 유곽 안에는 연봉형 종유가 돌출되어 있다. 전면에 선각으로 위패형 장식(가로 10cm, 세로 38cm)을 마련하여 “모운당”이란 당호를 종서로 음각 하였다. 천판부에는 복련을 장식하고, 그 위의 상륜시설로는 돌출된 연주문띠 위로 양련이 중첩된 연봉형 보주를 올렸다.

모운당은 범명이 진언(震言)이고 속성은 정씨이며 진양(晉陽) 사람이다. 광해군 14년(1622)에 태어난 숙종 29년(1703) 입적하였다.

백양사 무가당부도

이 부도는 석종형 부도로서 규모는 총고 150cm이고 둘레는 261cm이다. 팔각형의 기단석(가로 97cm, 세로 88cm, 높이 29cm) 위에 종형 탑신을 올렸다. 기단석 윗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나, 전면과 측면에는 선각으로 양련을 장식하였는데 후면에서는 생략되었다. 종형 탑신에는 전면에 2단의 장방형 구획(가로 20cm, 세로 42cm)을 마련하여 “무가당”이란 당호를 종으로 음각하였는데, 자경은 8cm 내외이며 깊이는 0.5cm 정도이다. 천판부에는 19엽 복련을 선각으로 조식하였고, 상륜시설로는 연주문 돌기대를 돌린 다음 중첩된 양련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연봉형 보주를 올렸다. 이 부도의 조성 시기는 17C말 이후로 추정된다.

백양사 서운당부도

이 석종형 부도는 서부도전의 부도 중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서, 크기가 110cm이고 둘레는 152cm이다. 규모는 작으나 세부양식은 무가당 부도나 모운당 부도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8각으로 다듬어진 기단 위에 종형탑신을 올렸는데, 기단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탑신 역시 두 줄의 굽은 돌출선으로 상대와 하대를 구획했을 뿐 별다른 장식은 없다. 부도의 형식이 모운당 부도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아 17C말 이후로 생각되어 진다.

백양사 영월당 부도

이 부도 역시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로서, 규모는 총고 171cm이고 둘레는 225cm이다. 6장의 석재로 이루어진 방형의 지대석(가로 172cm, 세로 162cm) 위에 놓인 8각 기단석(가로 94cm, 세로 88cm, 높이 36cm)은 방형의 석재를 모줄임한 형태로서 8면중 4방 모서리면의 길이가 전후면과 측면에 비해 짧다. 8각 측면에는 연봉형 장식과 변형된 화문이 장식되었는데, 후면은 생략된 것으로 보이며 다소 파손된 상태이다. 기단 상면은 복련을 장식하였으나 매우 간략하게 처리되었고, 1단의 각형 괴임 위에 종형 탑신을 안치하였다.

탑신에는 상대와 하대, 유곽 및 위패형 장식이 마련되었다. 상대에는 전면의 연봉형 장식을 중심으로 범자문을 돌렸다. 상대와 연결하여 4구의 유곽을 설치하였는데, 내부에는 화판받침 위에 종유를 배치하였다. 전면 중앙의 상대와 하대 사이에 위패형 장식(가로 19cm, 세로 48cm)을 양각하고 구획하여 그 안에 “영월당”이란 당호를 세로로 음각하였다(자경 5~6.5cm). 하대는 탑신 하단에서 20cm 정도 올라와 두 줄의 굽은 돌출 선으로 구획하였는데, 그 내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천판부에는 12판 복련의 연봉형 간판을 조각하였다.

상륜시설로는 여의주를 움켜진 4마리의 용두를 장식하였는데, 전면의 용두가 나머지에 비해 훨씬 크게 묘사되었고, 소요당 부도나 만암당 부도와는 달리 용의 머리가 정상쪽이 아닌 아래쪽을 향하도록 조각하였으며, 용두부분의 조각이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다. 정상부분은 소용돌이치는 구름형태로 마감하였다.

이 부도의 주인공인 영월당 경문(鏡文)은 설두 봉기(雪竇 奉琪: 1824-1890)의 동문 형제이므로, 이 부도의 조성시기도 19C말 이후로 추정된다.

백양사 지백당부도

이 부도 역시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로서 앞서 살핀 慕雲堂 부도와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규모는 총고 160cm이고 둘레는 242cm이다.

여섯 장의 석재로 이루어진 방형 지대석(가로 155cm, 세로 164cm) 위에 2단의 8각기단부를 마련하여 종형 탑신을 올렸다. 2단의 기단부에서 하단을 보면 윗면의 동서남북 사방에 거북을 한 마리씩 배치한 것 외에는 특별한 장식은 없다. 상단은 비교적 잘 정돈되고 불륨이 있는 16엽 복련을 배치하였는데, 8각 모서리의 복련 화판은 크고 그 사이의 화판은 좀 더 작게 표현되었다. 탑신부의 장식을 보면, 상·하대의 구획과 4구의 유곽시설 및 위패형 장식을 보인다. 상대에는 구름무늬 사이에 법자문과 근자문을 양각으로 새겼다. 상대와 하대 사이에 마련된 4구의 유곽은 방형이며, 화판받침 위에 돌출된 종유를 표현하였다. 하대 내에는 장식이 없으나 하대를 구획하는 위쪽 돌기선상의 측면과 후면에 화문을 장식하였다. 전면 중앙에 위패형 장식을 마련하였는데, 하단에는 양련좌 위에 장방형 구획(가로 15.5cm, 세로 25.5cm)을 마련하고 여의두문 형태의 이수(이무기)형 옥개석을 묘사하였다. 장방형 구획 내에는 다시 1단의 장방형 구획(가로 10cm, 세로 21.5cm, 깊이 0.5~1cm)을 만들어 “지백당”이란 당호를 세로로 음각하였다(자경 3.5cm 내외). 천판부에는 26엽 복련을 불륨 감 있게 조각하였다. 상륜시설로는 돌출된 연주문띠를 돌리고 양련이 중첩된 커다란 연봉형 보주를 올렸다.

이 부도의 조성 시기는 모운당 부도와 거의 동일한 시기로 추정된다.

백양사 화담선사비

화담당(華曇堂) 법린(法璘)(1843~1902) 선사의 비석이다. 비좌 전면 116cm, 폭 90cm, 높이 12cm에 다시 전면 100cm, 폭 69cm, 높이 12cm에 다시 전면 100cm, 폭 69cm, 높이 34cm의 2중 비좌에 전면 61cm, 두께 32cm, 높이 165cm의 烏石으로 만든 비신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전면 105cm, 측면 72cm, 높이 50cm의 비갓을 올려 마감하였다.

전면에는 가로 7cm, 세로 9.5cm 크기의 「화담선사비」라는 비액이 있고, 세로로 「화담선사비명병서」라는 비제에 이어 사의 행장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5세 법손까지의 문도질이 4단에 걸쳐 새겨져 있다. 전면의 비문은 영호정호가 찬하고 염재거사(念齋居士) 송태회(宋泰會)가 글씨를 썼다. 불기 2966(서기1939)년 3월 14일에 세웠다. 양 측면에는 각자가 없다.

백양사 명부전 지장삼존 시왕상

명부전에는 지장보살과 도명존자(道明尊者), 무독귀왕(無毒鬼王) 그리고 시왕(十王) 및 사자(使者), 판관(判官)이 모셔져 있다. 지장보살은 높이 110cm이고, 폭 77cm로 앉아있는 모습이다. 도명과 무독귀왕은 입상으로 높이 144cm이다. 시왕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높이 150cm이고 지옥사자와 판관은 높이 140cm이다.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은 목조이고, 시왕상은 소조상으로 만암스님이 중창불사를 할 때 조성한 것이다. 지장 보살은 승려의 머리 형태를 가지고 얼굴 아랫볼이 부풀어 오르고 목이 거의 없는 모습이다. 손에는 아무런 지물을 들지 않고 아미타인 수인을 결하고 있다.

백양사 칠성전 칠성상

대웅전 앞에 조사전과 한 건물로 모셔진 전각이 칠성전이다. 칠성전에는 칠성광여래(熾盛光如來)와 일광보살(日光菩薩), 월광보살(月光菩薩), 칠원성군(七元聖君)이 조각되어 모셔져 있다. 칠성전의 본존은 근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칠성과 일광, 월광 두 보살은 소조상으로 높이가 대략 80cm 내외인데, 1880년의 작품이다. 이 칠원성군은 원래 고종 17년(1880) 경진년에 왕의 명으로 조성하여 운문암에 봉안하였다. 이후 1948년 10월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운문암에서 위험을 느껴 이곳으로 옮겨 봉안하였다고 한다. 칠원성군은 모두 문관의 복장을 한 모습으로 머리 위에 하얀색 별이 달려 있고 검은색 단이 둘러진 빨간색 또는 파란색의 윗옷과 노랑, 파랑색의 내의를 입고 있다.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은 보살의 모습에 왕관형 관을 쓰고 있다. 머리 위에 일광보살은 빨간색의 해를 월광보살은 노란색의 달을 매달아 놓았다.

백양사 팔상탱화 3점

팔상탱화는 각각의 크기가 106cm*114cm, 104cm*114cm, 104cm*114cm이다. 백양

사에서는 1987년 11월에 반환하였는데, 이 팔상탱화 3점도 반환받아 현재 백양사가 소장하고 있다. 원래 여덟 폭이었던 것을 5폭은 도난당하고, 3점만 남은 것으로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유상출가상(逾城出家相)』이다. 모두 비단에 채색된 것으로 연대가 명시된 화기는 없다. 화면 안에는 여러 개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각 그림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빨간색 네모 칸에 검정글씨로 쓰여 있다. 모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을 사용하고, 각 이야기의 내용을 분할된 공간 안에 그려 넣었다. 각 공간들은 구름이나 담장으로 나뉘어져 여러 가지 서술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의 경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두 시녀를 거느린 마야부인이 중앙 상단에 나타나 있는데, 그 옆에 “마야천상생도솔천래견야(摩耶天上生兜率天來見也)”라고 쓰여 있고, 커다란 대궐에는 “구중전(九重殿)”, 장례식을 치르는 그림 옆에는 “호곡송언(呼哭送言)” 늙은 노인이 누워있는 곳 옆에는 “로봉노병와(路逢老病臥)”, 등 부처의 생애에 있었던 주요 장면들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작품의 색과 표현 형식으로 보아 19세기의 작품으로 보인다. 현재 대웅전에는 1988년에 그린 팔상탱화가 향 좌측에 봉안되어 있는데, 이 팔상탱화와는 표현형식이 다르다.

백양사 괘불지주

백양사 돌 괘불지주는 조사전과 칠성전이 있는 건물 앞에 좌우로 놓여있다. 큰 돌 하나를 깎아 내려가 두 개의 기둥으로 만든 이 지주는 높이 1m 정도이다. 최근 공사중 좌측 지주 하나가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대웅전과 괘불지주는 위치가 맞지 않다. 따라서 이 괘불 지주가 쓰일 때는 지금 진영각 위치에 주전각이 있었을 것이다.

백양사 대웅전 십육나한상

십육나한은 현세에서 정법(正法)을 지키는 16명의 아라한(阿羅漢:수행자의 최고 이상 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양사 대웅전의 십육나한상은 1925년 공시찬(孔施贊)이 조성한 것으로 현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각각의 나한은 하나의 나무에 조각하여 의복과 표정을 모두 다르게 처리하였다. 얼굴의 주름과 목 힘줄, 웃는 표정과 빠진 이까지 세세하게 묘사하였으며, 옷자락에 비단 무늬까지 섬세하게 그려 넣은 좋은 작품이다.

백양사 불사리탑

백양사 불사리탑은 대웅전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형의 하대석위에 연꽃을 장식한 엔타시스형 석주로 중대석을 삼은 8층 석탑이다. 탑은 본디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무덤으로, 홀수 층으로 만드는 것이 정석이나 이 탑은 짝수인 8층으로 되어 있어 불교의 8정도(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를 상징한다고 한다. 이탑은 일본의 홍법(弘法)(774~835)대사가 天竺(지금의 인도북부)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백용성(白龍城)(1864~1940)스님이 모시고 있다가 1924년 만암선사가 백양사에 이를 봉안하여 탑을 세웠다. 탑의 모습이 기존의 석탑과 상이하고 중대석과 탑신의 석재의 재질도 달라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탑이다. 본래 석탑은 대웅전 및 금당 앞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이 탑은 대웅전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시는 탑으로 불상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건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백양사 불사리탑비

백양사 대웅전 뒤편에는 일본의 홍법(弘法)(774~835)대사가 천축(天竺)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8층탑이 서있다. 그 진신사리가 어떤 경로로 백용성(白龍城)(1854~1940)스님이 모시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1924년 만암 스님이 이를 이 곳에 모셨다고 한다.

백양사불사리탑비는 바로 이 불사리탑을 건립한 연기를 기록한 비석으로 불사리탑 후면 좌측에 있다. 1924년에 세운 이 비석의 비문은 만암스님이 지었고 글씨는 추사의 해서체를 집자한 것이라고 한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76cm, 폭 76cm, 두께 21.5cm이다.

그런데 이 비의 좌측면에 보면 원래의 위치는 불사리탑 앞에 있었고, 또 비면의 소중한 기문과 방명이 풍우로 금이 가고 마모되어 글자가 심히 훼손되어 개탄을 금치 못해 다시 새겼다고 한다. 그리고 좌측면에 보면 1934년에 다시 세웠다고 하여 불과 10년 사이에 훼손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백양사 서향암돌탑

백양사서향암돌탑은 백양사의 수많은 고승들의 오랜 다비장(茶毘場) 터인 서향암의 입구 오른쪽에 높이 180cm쯤 되는 소형의 돌탑 1기가 만들어져 있고 지척의 거리인 다비장 터에 또 하나의 돌탑이 조성되어 있다.

기존 돌탑이 풍수지리 및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이용하는 반면 이 백양사서향암돌탑은 스님들의 다비장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 추측된다.

백양사 오백나한상

1824년 11월에 화순 쌍봉사의 오백나한전이 무너져서 나한전 내의 불상을 백양사

로 옮겨왔다. 석조나한좌상 241구, 목조나한좌상 200구, 소조나한좌상 32구 및 석조 사자상(使者像) 3구, 목조수문장상 2구 등 모두 478구였다. 그중 대부분이 유실되고 남은 7점을 대웅전 향 좌측벽에 모셔져 있는데 모두 석조이다. 그들은 대략 높이 40cm내외로 표정과 자세가 매우 독특하다. 여러가지 조각방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작품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백양사 진영각, 칠성전

백양사 진영각, 칠성전은 다른 지역의 진영각 및 칠성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진영각과 칠성전은 독자적인 건물을 갖고 있으나 백양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다. 진영각, 칠성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면4칸 측면3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진영각이 정면3칸, 칠성전이 1칸을 차지하고 있다. 진영각은 사찰의 조사 및 업적이 높은 고승의 진영을 모시는 곳으로 백양사의 진영각에는 개창자인 여환선사를 중심으로 중연선사와 각진국사 및 30여분의 고승의 진영을 모시고 있다.

칠성전은 주로 칠성각(七星閣)이라고 하는데 민간신앙인 칠성(북두칠성)을 모시는 곳으로 주로 사찰의 뒤편에 있으나 백양사는 대웅전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건물은 모두 1919년 만암선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시대 말 불교건축의 정형성이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백양사 명부전

백양사 명부전은 정면5칸 측면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는 우물마루와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다. 명부전은 시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하는데 지장보살과 십왕(十王)을 모시는 건물이다. 지장보살은 원래 부처의 반열에 오른 보살인데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여 지옥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다. 그러한 이유로 보살이지만 관을 쓰지 않고 있으며 손에 괘장이나 법륜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표현된다. 백양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 이외에 지옥을 다스리는 십왕상이 함께 봉안되어 있는데 각자의 지옥을 다스리며 사람의 평생의 선악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백양사 명부전 지하에 납골당인 영각당을 지어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백양사 서향암 미타보궁 아미타여래상

이 불상은 높이 46cm로 청동으로 제작하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아미타구품의 수인을 결하고 있다. 내의의 통견을 걸치고 무릎 위가 수평으로 좁게 만들어져있다. 청류암의 불상과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백양사 청류암 아미타여래상

단정한 얼굴에 야무진 체구를 가진 이 불상은 청동으로 제작하였는데 높이는 70cm이다. 내의의 윗부분은 옷 주름이 잡혀있고 통견의 오른쪽 자락이 어깨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돌아간다. 몸에서 내려온 옷자락은 걸가부좌한 다리위에 부채살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이러한 표현은 18세기 불상에 자주 보이는 특징으로, 이 작품도 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백양사 범종루

백양사 범종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으로 된 누각의 겹처마 팔각지붕 건물이다. 아래층은 홍살로 사면을 두르고 범종을 두었으며, 위층에는 범고, 운판, 목어를 두었다. 범종루는 대체로 불교의 불전사물인 범종, 범고, 운판, 목어를 두는 곳인데 백양사 범종루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불전사물은 소리를 통하여 만물을 구제하고 불법에 귀의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범종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범고는 수소와 암소의 가죽으로 만든 북으로 들짐승을 구제하고, 운판은 구름모양의 금속판으로 날짐승을 구제하며, 목어는 나무로 만든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으며 수중생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불전사물을 두드림으로써 사찰의 시간 및 행사를 알리기도 한다.

(2) 무형문화자원

이 지역의 무형문화자원은 유형문화자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불교문화와 관련된 것들인데 백양사의 사찰 및 암자 그리고 고승에 대한 전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례문화의 경우에도 당산제와 같이 사찰과 마을이 함께 지내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 산성문화권과 같이 고개길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는데 교통로에 대한 옛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9건의 문화자원이 조사되었는데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다.

연번	자 원 명	지정현황 (지정호수)	격자	용도지구	시대	비고
1	중고기 이야기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조선	전설
2	목중에게 시험당한 백양사 주지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조선	전설
3	마귀들을 추방한 진묵대사	비지정	19	문화유산지구	조선	전설
4	각진국사가 곡두재를 예언하다	비지정	25	공원인근	고려	전설
5	곡두재 도둑	비지정	25	공원인근	일제강점기	전설
6	약사암 영천굴 쌀 나오는 바위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조선	전설
7	국기제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고려	제례
8	당산제	비지정	25,28	문화유산지구	조선	제례
9	백양사의 유래	비지정	25	문화유산지구	백제	전설

표 II-2-8 전남사찰문화권 무형문화자원 조사 내용

중고기 이야기-구연자 : 구연자-안재운

진묵대사가 운문암 절 같은 디서 사는다. 항시 내려오면 전에는 이치왕 때지. 인자 이렇게 합창례(合掌禮)고 있어, 그저 농부고 누구한테던지 중이라는 것은 천했어요. 이씨 왕때는. 그런게 개성 도읍(1)[주]고려때를 말함.에는 중이 아주 득세도 했은 게 는 말할 것 ?고, 그리고 왕씨때 중이 전부다 중씨로 되다 시피 했어. 그리고 이 한 국때는 말하자면, 이태조 때는 중이 하대를 받았읍니다. 그런게 언제든지 산사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합장허고, 예, 안허고 가면은 그때 질(길)을 가딜 못 했어. 인제 이 초군들이 있어도 그래.

[조사자: 나무꾼들?] 암만 그 또 질에 내려오다가도, 행각(行客)을 만나도 이렇게 허 고 가고, 앞으로 꼭 가고 그랬어. 그런데 한번에는 농부들이 쉬는가 봅니다. 그러자 갱변에서 괴기(고기)를 잡아 잡어갔고 인자 요새 같으면 추어탕이라고 안해요? 인 자 끓여갔고 술먹고, 야단힐 땀인디 진묵대사가 내려오던 문양이여. 내려오는데 합 창 배례를 안하고 가. 그런데 벌써 알던 문양이지, 진묵대사는 도통한 높은 중인게, "아, 저런 중이 평민들 보고 합장도 안하고 간다고. 나쁜 중이라고 잡아 오라." 고, 그래 잡아다 났어. 그런 국 끓여놓고 술 먹는다,

"중도 껌 먹어 줄 아느냐?"

고 그랬단 말이여.

"아이 껌 먹지. 못 먹을 것 뭐 있냐?"

고, 국을 한 그릇 떠준게 먹었어. 아 그러니까,

"중이 고기 먹는 중이 어디 있느냐?"

고, 인자 실갱(殺生)이라. 인자 그럴거 아니요. 중은 고리를 안 먹는 것인데 먹는다
고.

"아 그럼은, 아 내가 당신들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은게 그럼 도로 내놓을란다." 고.

"내놓으라."

고 그랬어.

"그럼 내놓는다."고.

"어디 중이 껌을 먹고 술 먹는 법이 있느냐?"

고. 인지,

"술은 입으로 토하고 껌은 뒤로 내놓을란다."

고. 인지 그렇게 곡목은 기름기를 뒤로 내보낸다고 이런게로,

"내보내라."

현재,

"따라들 오라."

고. 그래가지고 강변으로 갔어요. 물에로 갔어. 물에 가서 싸, 똥을 싸 똥을 싸는디
똥 껌이 딱 꿈틀거리. [일동: 웃음] 그것 중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안고랑에 가
서 본다. 산중 고랑에 가면 모다 중껌이 있어요. 그것껌을 보고 중껌이라 그래
요. 죄다 내버리고 땀나게 껌이 비늘이 없어요. [조사자: 바늘이 없어요.] 응. 그
껌이 비늘이 ? 어. 그렇게 맞도 없어. 누리고 그것이 요 안고랑에 가면 많이 있어
요. 그 백양사까지 있고 그고랑 있는디 잘 안먹어요. 그 껌을 그 중껌이라고 그
진목대사 똥구덕에서 나왔다는 중껌이라고 그런 중입니다. 인자 웃스런 얘기를 하
나 했어. [일동: 웃음]

목중에게 시험당한 백양사 주지-구연자 : 최준성

그것도 뜬 소문인데, 지금 그때가 인종때나 됐던가 백양사 주지라고 있잖아? 주지
라는 사람이 백락산이라고 혀. 그러니까 배가, 영변이네. 집안 되거든요. 백락산. [조
사자: 백학산?] 주지로 있을 때 절에 가서 있는거래요. 어디서 꿈도 아니고 잉, 머슴
살이 같이 허름한 사람이 왔어.

"절에 있을란다."

고, 그러니까 절이다가는 머슴을 두면은 목중이라는 사람을 두거든. 목중이라고 나무해다가 불때는 것을 목중이여. 그러니까 그 목중이가 거기서 나무해다가 불을 때 주고 그러는디. 그 허는 행동이 이상스러워. 이상스러우니까 혼자서 헌단 말이, '어디로 보든지 꼭 도를 통헌 것만 같여.' 그래 그 사람 내력을 알기 위해서 그 목중이가서 자는 방, 지금 같으면 머슴, 머슴이지, 그이를(여기) 들어가서 '그러냐? 저러냐?' 물었싼게 주지한테 헌단 말이,

"아무 날은 난리가 난다."

고 그러. 아이 느닷없이. 그러면,

"난리가 나면 어떻냐?"

"예가(여기가) 있으면은 살기가 어려운데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살 수가 있다."고.

"그럼은 그러라."

고. 그런데 그러면은,

"피난 가서 먹을 것이 있어야 허지 않냐?"

허니까,

"그럼은 찰떡을 해가지고 질머지고 가자."

그 소리 했더니, 그가 찰떡을 해가지고 질머지고 한동안 가니까, 큰 산이 당도허거든. 산이 당도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 구름이 덮여있어. 그런데 거 가서 보니까 저 산 바위 꼭대기가.

"그 절벽인디 거기를 올라가야 산다."

헌디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 그 이이가 뭐라고 허는게로 그 거기서 동우리가 내려오드래요. 그 위서 줄을 달아가지고 그러더니,

"그놈을 타야 헌다고. 타라."

고. [조사자: 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로 광주리 같이 해가지고 위에서 줄을 잡아 땡기면 그 바위위로 올라가는 구력이 내려와.

[조사자: 바위위로 산꼭대기에서.] 응. 그래서 그놈 혼자 탔어. 그 사람은 어디로 가 번지고 혼자 타고 저 절반쯤 올라기니까, 지금 같으면 승강기 올라가다가 중지되듯 기 딱 중지가 되 번졌어.

[조사자: 중지?] 응, 가지도 앓고, 오지도 앓고, 중간에 있어. 밑으로 내려오자니 떨어져 죽었고. 위로 올라가자니 올라갈 디가 읍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서 다람쥐가 나와[조사자: 다람쥐가.] 나오더니 그 줄을 타고 내려와, 다람쥐가? 그러더니 이놈을 물어 뜯드래요, 줄을. 그러니 이러한 답답헌 노릇이 있는가. 그놈이 물어 뜯어번져 풀이 끊어지면은 땅에 떨어져 죽어번지겠고. 위로 잡아 땡기지는 안하고.

그런디 한참 있는게로 한가락이 푹 떨어지네. 그런게 깜짝 놀래 것 아니여? 소리를 버럭질렀지. 그러사닌게 깜짝 깨어버렸지.

"네이(너의) 맴이 어찌 약혀?"

허고, 딱 뚜들드래요, 어깨를 그러고 본게 쥔 반갑졌네. 그런게 이 사람이 딱 험다 말이, "음, 이 주지라, 백양주지가 쓸만한 사람인가 허고 내가 찾아왔더니, 맘이 너 무 약허다."

고, 그석을 보니 소리쳤다고 말이여이. [웃음] 크게 쳤다고.

"쓸사람인 줄 알았더니 쓰것냐고. 나는 헛수고 하였으니까 가야겠다."

그렇게 떠난 뒤로, 저기 저 여기 열 마지기 논백이 방귀씨네 벌던 논이 있잖오? 그것 그 논을가지고 집안이 이 부락에 살아. 먼저 주고 온 이야기, 누구여. 참물동 이서 배태네 게 논을 열마지기를 그 절에서,

"에 이것 허망한 세상이라."

고, 절 논 열마지기를 즈그 집안 사람을 주었어. 이 부락에 사는. 그리고 배태선이 는 저 아니 배락선씨는 죽어번지고. 그 논 열마지기 산 사람이 벌어먹었다 어찌고 팔아번지고, 종착은 여기서 굶어죽니라 허다시피 허다 죽었어. 그런게 되지 않는구 나.

마귀들을 추방한 진묵대사-김범은

선조 초년에 진묵대사가 운문암 들어와서 佛事를 하며 茶角(차를 끓여 받치는 임무)의 임무를 봉행할 때 하루는 神衆壇(신중단)에 차를 올렸는데 그날 저녁에 신장들이 스님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하기 우리들은 호법신으로 불예를 되돌려 드립니다. 마음속이 황공하니 다각을 다른 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스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마침 아랫동네에서 나무꾼이 올라와 하는 말이 산 아래에서 나무를 채집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녀 2인이 기쁨마음에 웃고 떠들며 운문암으로 올라가더니 돌아오는 길에는 대성통곡하고 내려오기에 그이유를 물었더니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곳을 확실히 정할 요량으로 운문암으로 찾아 갔더니 一玉(일옥: 진묵대사의 범명)이라는 중이 맹렬한 불길로 우리를 태워서 화독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였다. 스님들은 꿈을 꾸 후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자 진묵대사는 살아 있는 부처가 분명하며, 火光三昧(화광삼매)로 마귀들을 추방한 것이라 여겨 진묵대사를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불사를 다시 함에 진묵대사가 스님들에게 말하길 "내가 다시 와서 불사를 하기 전에는 불상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여 아직까지 운문암의 불상은 개금하지 않았다고 한다.

각진국사가 곡두재를 예언하다-구연자: 해권 스님

각진국사하고 얽혀 있는 이야기는 곡두재라고 하는데, 거기를 찢르면 삼남에 재해가 온다 거그를 꼭 찢르지 말아라. 그 글씨는 나도 보기는 보았어요. 거 글씨는 동국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해요. 재는 현재 찢라져 있지요. 그때 천장스님이라고 여기 주지하실 때에 그때 농림부 장관이라고 하시든가 나중에 장관으로 진출되어 가신 분이 여기 오셨을 때에 그런 말을 하시드라구요. 그러니까 왜, 광주사태가 일어나고 다음 해였던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에 그런 말을 해주지 지금사 하느냐고 했어요.

곡두재 도적-구연자: 안재운

그 분도 이름은 잊어버렸지. 내가 그러면 알아서 아무개라고 하면 되니까. {조사자: 이름은 모르드라도 거기 도적하면 이런 얘기 좀...} 그러지랴요.

요근방 사는 이가, 그 여기서 한 오십 리 떨어진데 사는 분이 한분이 백양 산 산에다 묘소를 썼어요. [조사자: 묘?] 할아버지 묘를. 그런데 성묘를 와서 본게 묘소를 파버렸어. 두상(頭上)을 가져가버렸어.[조사자: 묘, 그렇게 시체.] 시체 두상을 가져가버렸어. 그 손자는 할아버지 두상을 잃고 어찌곳소? 그것 찾아야지. 그것보고 수박장사라 그랬다오. [조사자: 수박장사.]

그것을 수박장사. 두상이 수박같이 둥글둥글 안해요? 그 파갈 적에 어째서 파갔는고니, 돈을 올려(뜯어)먹을라고 파갔어요. 그런데 수백년 된 배나무가 하나가 섰습니다. 지금도 그 배나무가 있어. 돌배나무가, 지금 여기 배보다 훨씬, 지금 시장에 나는 배보담 아마 오분지 일쯤 될 것이요. 그배나무가 배 열매가. 배나무가 하나 섰어요. 아주 인거한(인적이 적은)곳이지. 그런데 이게 그 방문을 써 붙였어. 그 파간 사람이 그 두상을 파간 사람이,

"너는 돈을 얼마를 갖다가 이 배나무에 놓으라. 그리고 만약 그 근방에 가서 내가 있다고 보면 목숨이 보전 못혀. 그렇게 넣어만 놓고 가거라. 그럼 아무날 짬에 넣어라."

이랬단 말이여. 그런데 자기 문중허고 타협헌 결과 그 배부덩이라 돈을 맨들었어. 가짜돈으로 신문지로 요만큼 맨들었다면 여기다 천원짜리로 넣어서 똑 똑같이 맨들어갖고 딱 찢맷어. [조사자: 가운데는 돈이 아니요?]

가운데는 신문지지. 그래갖고 요새를 말하면 몇 백만원을 인자 맹글었다 말이여. 요 여러 몽치를, 지가 요구현대로. 그리고는,

"내가 수가 많다. 인자 짚신을 두 죽을 갖다 놔라."

인자 전에 짚신신고 대닐 맨디. 그렇지 한 사람에 이십 켈래라면 이십명이 복병해

하고 있다는 말하자면 그런 표시지. 그래서 위협주는 바다.

위협주는 바다 그말여. 그러리라 하고 갖다넣었쇼.

넣는디 낮에 가서 잡복헌 부대가 있었어요. 전일에게 굴레 사람이라 말이지 그 일 본놈 때입니다. 그때가 준오병이 아니고, 인자 형사 밋이 가서 미리 잡복을 했다 그 말이며. 먼디서 볼 곳 아니요? 가까운데서는 못 오고. 인자 갖다 느놓고는 기침을 하고 사방을 둘러본고 한참 섰다가 내려왔어. 그러니 백양사 사람이요. 동구라고 합니다. 절 밑에 마을 이름 보고는 동구라고 그래요. 에 말하자면 마을 동자, 입구자, 동구(洞口)라고 허는. [조사자: 마을 동자.]

입 구자, 동구라 그래요. 여기 온 중들한테서 품팔아 먹고 사는 마을이며. 그 동구라고 헌디는. 그런게 그 동구 사람이라고 허면 듣기 싫어합니다. 낮차게(낮게)말헌게. 그 동구 사람이라면 절 밑에 사는 사람들을 다 싫어합니다. [조사자: 욕하는 소리인게.]

욕허는 말갈이로 하대 혀 본다 그말이며. 중들 밑에서 심부름허는 사람이라 그렇게 그놈을 잡았어. 그때 잡아갖고 본게 그 동구 사람이여. 그래 갖고 징역 한 십여년인가 살았을 것여. 그런 일이 있어. 제일 큰 것이 그것여.

약사암 영천굴 쌀 나오는 바위-구연자: 김범은

그것은 처음에 거기서 사람이 살았던 모양이며. 도사가 상좌하고. 쌀이 돌구덕에서 나오드라요. 돌이 묵을 쌀이. 그래서 쌀을 받아먹고 사는디 한 번은 손님이 왔드라요. 돌이 묵는 쌀 밖에 안 나오는디 서니가 묵을 쌀로는 적을성 부르거든. 그래서 상좌가 쇠비땡 갖고 쭈셨어. 더 나오라고 허허. 그런게 쌀은 더 안나오고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 피가 나오다가는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 전설에 나오는 이야긴다.

그 물이 지방까장도 영금이 있어. 위장 나쁜 사람은 거가서 다 고쳐. 위장이 나빠서 밥을 못 먹 하는 사람도 거그서 일주일만 기도하고 그 물을 먹으면 낫어버려. 근디 그 물이어디냐 하면(제보자는 백암산 백학봉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위에 산 꼭대기 밑에 이렇게 생긴 데 있제. 물이 흐르는 태죽이 있제. 그 물줄기여. 그 물줄기가 이 아래 와서 영천굴 앞에 와서 저장이 되었어. 지방도 그 물이 영금해요. 내가 시험을 해봤다 이거여. 속 쓰릴 때 먹어봤다 이거여. 술이나 먹고 속 쓸릴 때 먹으면 그 날로 좋아져. 위장이 썩어서 밥 못 먹은 사람도 일주일만 기도를 하고 그 물을 먹으면 낫는다 이말이며.그래 그 주지는 생전 아프단 말이 없어. 그런 예가 있어.

국기제(國祈祭)

국기제는 국가에 환란이나 재앙이 있을 때 조정에서 근신(近臣)을 보내어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국가적 제의 행사이다. 백암산에는 고려 충정왕 때에도 국기제를 올렸다는 구전이 있으며 「정토사 사적(淨土寺史蹟)」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기록에 조선 선조36년(1603)과 현종2년(1661)에 호남지방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임금이 친히 제문을 짓고 홍문관 교리를 파견하여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국기제는 종파를 초월하여 국난을 극복하려는데 의의가 있으며 유교식 제의에 의해 조정에서 파견된 헌관과 인근 7~8개 고을 원들이 집사가 되어 제를 봉행하였다.

행례 절차 중에는 강신례(降神禮)가 없고 헌관 1인이 연전 3작하고 4배를 올리며 축(祝)은 땅속에 묻었다. 제물은 4변(籩) 4두(豆)를 사용한다.

오랫동안 단절된 이 국기제는 1982년 장성군민의 날 민속 경연대회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 매년 제를 올리고 있다.

당산제

가인마을 에서는 정월달에 마을과 백양사가 공동으로 제의를 모시는데, 이를 ‘당산제’라고 부른다. 백양사에서 제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에서는 제에 올릴 술과 마을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과 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이렇게 제의 준비가 끝나게 되면 절에서 스님 두 분이 나와 마을사람들과 함께 제를 모신다.

제는 진설→헌작→삼배→독경→축원→소지 순으로 진행이 된다.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 밤에 모신다. 날짜에 여유가 많으면 해가 바뀐 후 마을에 초상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산제를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를 초사흘날로 정한 것이라고 한다.

제를 모시는 장소는 2곳으로 ‘안당산’과 ‘바깥당산’이라고 한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바깥당산은 백양사로 올라가는 길목의 일광정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안당산은 ‘할머니’라 부르고 역시 백양사로 올라가는 길목의 극락교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를 신체로 삼고 있다.

백양사의 유래-구연자: 해권스님

스님이 이 절에 오셔가지고 이 절에 대한 내력 같은 것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절이 옛날에는 백양사 이름, 고갯이 대표적인 것여. 그러다가 제일 먼저 지은게 바위에가 희다고 해서 백암(白岩)이라고 했어요. 백암. 저 위에 바위 이름이 백암이

라고 해서 백암사, 백암사가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처음에는 백제말에 세웠어. 그런데 인제 중간에 정토사라 바뀌다가 고려때, 이조때 백양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에 관한 인자, 유래가 있죠. 그제 요 백악봉 밑에, 뒤에 흰히 다보이는 높은 바위가 백악봉이거든요. 백악봉 밑에서 저 약산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에서 어떤 스님이 낮에 경을 읽는데 일곱마리 양(羊)이 와서 꼭 무릎을 꿇고서 인제 그 법문, 경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고서 인제 얼마 후에, 이 양들이 인제 그 스님 저녁 꿈에 현몽하기를,

“우리는 스님의 경읽는 소리를 듣고서 그만 마음이 욕심을 내가지고 축생의 몸을 벗어나서, 다음에는 인제 사람으로 다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고 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주위를 찾아

보니까 정말 양 일곱 마리가 죽어 있더라 이말요.

용 일곱마리가요? 양 양 양이? 그래서 인제 그땐은부터 그 스님 이름을 부르라니까 양 양자, 환양 그 환양승이라 했고, 그러면 그때로 부터 이절 이름을 백양사라 했어요. 이 요것이 대표적인 전설이 될 것이여.